



“지역 예술가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됐으면”

10년 만에 재개관한 수하갤러리...내달 3일까지 '한국화 27작가'展

“지난해 퇴직 후 버킷리스트 1위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역 작가와 함께 성장하는 갤러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죠.”

지난 4일 장하경 대표(전 광주대 교수)가 수하갤러리(동구 동명로 28번길 15-11번지)를 10년 만에 재개관했다.

옛 금호문화재단 건물 옆에 자리한 수하갤러리는 2013년 처음 문을 열어 2년 간 운영했다. 남편인 김대원 조선대 미대 명예교수의 퇴직 시기에 맞춰 갤러리를 개관했지만, 바쁜 학교 일로 갤러리 운영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해 잠시 문을 닫게 됐다.

정 대표는 “당시 작업에 몰두하고 싶다는 남편을 대신해 갤러리 일을 도맡아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탓에 제대로 된 기획 전시를 열지 못했다”며 “이번 재개관으로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 제공 등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재개관 기념전은 초대전 시리즈 I ‘한국화 27작가’ 전시로, 전남대와 조선대 한국화 교수들에게 추천을 받아 초청된 27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도록 또한 여느 전시와는 색다르다. 전시에 참여하는 27명의 얼굴이 첫장을 가득 메운 것. 작가의 얼굴과 이름, 작품세계가 담긴 작업노트를 앞 부분에 배치해 ‘작가’ 자체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는 “문화도시 광주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지역 작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 소비 또한 열악해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기에 힘든 상황이다”며 “작품은 전시장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작가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이들의 얼굴과 작품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록을 통해 시민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전시로는 지역 서양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한국화·서양화, 신진·중견·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고루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하갤러리가 지난 4월 10년 만에 재개관했다. 사진은 장하경 수하갤러리 대표.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우리 광주가 예술가를 사랑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그림을 좋아하고, 또 그 작가들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작가와 대화 시간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중에는 관람객들과 공동 작품을 만들어보는 등 작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수하갤러리가 그런 역할을 잘 도맡아 해줄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無等’, ‘떡’을 만나 풍경이 되다

계산 장찬홍 수묵화전...오는 6월2일까지 의재미술관

무등에 살며 무등을 그린 화가 계산 장찬홍의 수묵화전이 의재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떡과 붓을 아껴 담백한 울림을 주는 장찬홍의 문인화, 산수화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장홍 출생인 장찬홍은 1961년 의재 허백련 문하에 입문했다. 올해로 60년, 스무 살 청년에 시 작한 그림이 환갑을 맞았다.

다리가 불편했던 장찬홍은 무등산 자락 스승의 춘설헌(春雪軒) 근처에 기거하며 그림을 배웠다.

이번 전시 주제인 ‘계곡의 물소리를 듣다’는 무등산 청계재(聽溪齋)에서의 추억을 담고 있다.

장찬홍은 그의 맑고 진실된 성품을 알아본 스승이 써준 ‘계산청진(龜山淸眞)’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며 스승이 세상을 떠난 이후까지도 47년간 무등을 지켰다.

장찬홍은 전통 수묵화를 기반으로 따뜻한 감성의 자연과 일상을 담았다. 문인화의 전통은 간직하면서도 문기 어린 필획으로 대상을 단순화해 현대적 회화미를 구축했다. 그림에 함께 적은 화제도 한글로 바꿔 써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자 했다.

자신의 화실을 그린 ‘청계재, 그때 그시절’



‘청계재, 그때 그시절’

그시절’에는 의재 선생과 함께 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반생을 살았던 무등산의 절경은 ‘서석춘색(瑞石春色)’, ‘무등서설(無等瑞雪)’, ‘무등산 새인봉’ 등 수많은 무등산 작품으로 표현했다. 고향 장흥의 억불산과 제주도, 설악산, 금강산 등 전국 명승은 담담하면서도 장쾌한 붓질로 화폭에 새겼다.

비안개에 싸여 아스라이 보이는 산과 바다는 그가 본 풍경이라기보다는 지그시 눈 감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온 풍경인 듯하다. 이외에도 일상의 자연을 그린 ‘영경귀’, ‘모정’, ‘무념’ 등에서는 자연과 삶을 대하는 그의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이 느껴진다.

전시는 오는 6월2일까지 의재미술관 1.2전시실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이이남, 스위스-한국 60주년 기념전 참여

오는 24일부터 6월24일까지 바우르재단 박물관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올 봄 대한민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참여한다.

이 작가는 오는 24일부터 6월24일까지 스위스 바우르재단 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전시 ‘멀고도 가까운 아침의 나라’에 작품 4점을 출품한다.

이번 바우르재단 전시는 기예 아시 미술관과 바우르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유물들과 수백년 간 이어져 온 문화, 사물, 재료, 색상 및 문양 사이 연관성에 주목한다.



이이남작 '경재정선과 세잔'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는 자신의 시선으로 본 스위스와 한국의 새로운 풍경을 펼쳐낸다. ‘인왕제색도-사계’, ‘경재정선과 세잔’, ‘신-몽유도원도’, ‘박연폭포’ 작품을 통해 동양의 자연을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갑진년 빛날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작품공모

광주문화재단, 15일까지 이메일 접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올 한해 동안 선보일 ‘토요일상설공연’ 참가작품을 모집한다.

토요일상설공연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너달마당에서 진행되는 무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회 무대와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단체)를 초청한 기획공연 9회에 구성된다.

매월 첫째 주 판소리·산조, 둘째 주 국악 창작, 셋째 주 연희·무용 공모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며 마지막 주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을 선보인다. 매주 토요일 무등산 일대를 전통 풍류와 가락으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총 개인 14명, 단체 14팀(▲판소리, 산조 각 분야별 7인 총 14인 ▲국악 창작 무대 7개 단체 ▲전통연희 또는 무용 작품 7개 단체)이다.

지원 자격은 전통예술의 전승·계승을 위한 전문 지식 및 공연 역량을 갖춘 전문 단체(개인)이면 가능하다. 단 종교기관 소속 단체, 학위 취득 연주 목적, 출연진 전체 중 30%가 아마추어 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개인)와 전년도 ‘2023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에 참여한 단체(개인)는 접수가 불가하다. 또한 2024 광주문화재단 창작 지원사업(통합공모)에 2건 이상 선정된 단체(개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문화재단 또는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지난해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모습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icf338@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년째를 맞은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은 ‘토요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주제로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는 전통예술 공연이다. /최명진 기자

취급점 모집

당뇨·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드신 후 50분 후 당을 체크하십시오.
당일 즉시 30-50mg 이상
당이 떨어집니다.
확인하십시오.
조건 없이 무조건 7일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등록허가 제품,
특허청 출원 제품,
농협생 산물배상 3억 가입 제품.
문자만 주십시오.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대양식품(주) (문자 및 문의) H.P 010-4624-5046 (농협: 302-0078-2035-31 유한성)
(단, 택배비 소비자 부담 5,000)

사람을 찾습니다

- 무료 시음회 참석하실 분 -

-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 고혈압으로 시달리신 분
- 고혈압, 당뇨 혈당을 정상화하고 싶으신 분
-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
- 말이 필요 없습니다. 50분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조건 없이 7일분 보내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등록 제품 / 특허출원 등록

마시는 알부민 골드α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1개월분(30포) : 148,000원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주) 보람 약품

네이버 카페 마시는 알부민α 검색

주문 : yuhanbio@naver.com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 유한은

시군 대리점 모집

광주본사 : 010-4624-5046